‘3不’ 중 본고사 부활 가능성 가장 높아

■ 2010학년도 이후 대입 어떻게 될까

대입 완전 자율화 함께 ‘3不’ 폐지될 수도

대학 자율화가 본격 추진되면서 대입전형의 변화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학교육협의회가 28일 발표한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를 금지한 ‘3불(不) 정책’이 내년까지는 유지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가 발표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로드맵’에 따라 2012년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급격한 변화를 줄여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교협의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개별 대학이 ‘3불’을 깨겠다고 나섰을 경우 정부가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돼있다. 새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 이후 크게 달라진 점이다.

대교협은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각 대학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면서도 대학총장 등 15명으로 된 대학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사항을 위반한 대학이 있을 경우 대교협 이사회를 통한 징계 요구, 검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대교협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과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 단계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불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밝혔다.

3불 유지 또는 폐지 여부, 보완 방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학, 고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대입 완전 자율화와 함께 적당한 시점에서 3불을 폐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200개 가까이 되는 전국 4년제 대학들 가운데 ‘3불 폐지’를 주장하는 대학은 서울·수도권 일부 대학에 그치고 있고 사회 여론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3불 폐지’가 쉽지만은 않다.

이배용(이화여대 총장) 대교협 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은 “대학 간 의견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의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며 “2011년 이후 대입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보다 심층적이고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불’의 세 가지 요소 중 본고사는 부활 가능성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대학들이 본고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올 초 ‘지필고사 형태의 본고사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논술 가이드라인이 폐지됐기 때문에 본고사 성격의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들이 일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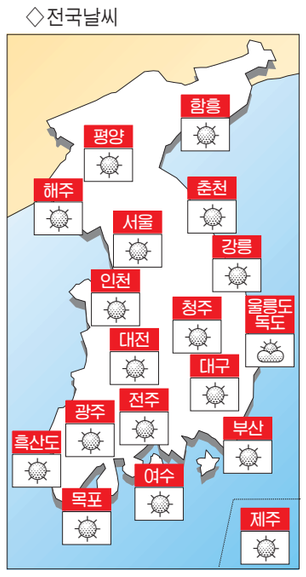
여름이 가기 싫은가봐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맑겠다.

8월 29일 (음 7월 29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맑음	20~31℃
목 포	맑음	20~29℃
여 수	맑음	21~27℃
완 도	맑음	19~30℃
구 례	맑음	17~32℃
해 남	맑음	18~30℃
장 흥	맑음	17~31℃
고 흥	맑음	18~30℃
순 천	맑음	17~32℃
영 광	맑음	18~29℃
진 도	맑음	18~30℃
전 주	맑음	18~31℃
남 원	맑음	16~31℃
흑산도	맑음	20~25℃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0.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0:59 13:01 썰물 06:25 18:26
여 수 밀물 07:59 20:31 썰물 02:01 14:00

▲해뜸 06:03 ▲해짐 19:03 ▲달뜸 03:57 ▲달짐 18:0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0(토)	31(일)	9/1(월)	2(화)	3(수)	4(목)
날 씨						
최저/최고	21/31	22/29	21/27	21/28	20/29	20/29

28일 오후 김용채(맨 왼쪽) 전 조선대 재단 이사장 등 직전 임시이사 5명이 조선대 2층 회의실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긴급사무처리권’을 이용해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조선대, 교수 채용 등 7개 현안 의결

이사회 소집 ‘긴급사무처리권’ 행사

‘이사부존재 사태’를 맞고 있는 조선대 법인이 28일 직전 임시이사들로 긴급이사회를 소집, 학교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 ‘긴급사무처리권’을 행사했다.

조선대가 긴급사무처리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7월 1일 이사부존재 사태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지난 6월30일로 임기가 끝난 김용채 전 이사장 등 직전 임시이사 5명이 참석해 2학기 학사일정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7개 안건을 처리했다.

가급적이면 ‘긴급사무처리권’을 발동하지 않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압박, 8월 내에 정이사가 선임되길 바랐던 임시이사들이었기에 이날 회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다.

이사회는 이날 ▲조선대 교원 임용 ▲조선대부속중·고 교원 임용 ▲조선이공대 교원 임용 ▲조선대부속고 교장 재임용 ▲조선대 의대 임상수기센터 신축 승인 ▲야외음악당 재건축 승인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조선대 법인이 발동한 ‘긴급사무처리권’은 민법 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에 의한 것으로, 법인 측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긴급이사회를 통한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한편, 사학분쟁조정위는 최근 조선대 등 정상화를 추진 중인 4개 대학 문제만을 다루기 위해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차기 회의는 9월4일로 예정돼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다문화 가족 지원 네트워크 구축

광주시·전남도·광주지검 협약 … 인권지킴이 위촉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지검이 다음달 22일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법’ 시행에 맞춰 광주·전남지역 다문화 가족의 지원·교류·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특히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읍·면·동별로 ‘인권지킴이’를 위촉, 다문화 가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태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황희철 광주지검장은 다음달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지역 다문화 가족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3개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잡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게 된다.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다문화 가족 인권지킴이 위촉과 의료·미용봉사, 법률상담 등으로 꾸며진다.

광주·전남지역 451개 읍·면·동별로 1명씩 위촉되는 인권지킴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등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다문화 가족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을 펴게 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벌초때 말벌 조심 하세요

몸집 커지고 개체수 늘어

최근 인근 산이나 야외에서 서식하는 말벌의 몸집이 커지고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28일 양봉업계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 유명산에서 표본 조사한 말벌의 개체수가 작년에 비해 20~30%, 벌집 수는 10~15% 정도 각각 늘어났다.

이처럼 말벌의 체격이 커지고 개체수가 늘면서 말벌에 쏘인 사람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5시40분께 순천시 서면 판교리 인근 야산에서 백모(62)씨가 벌초를 하던 중 말벌에 얼굴과 머리를 쏘여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지난 26일 낮 12시20분께 여수시 만흥동 야산에서 박모(60)씨 부부가 묘지 벌초를 하던 중 말벌에 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추억의 7080 충장축제’에서 교복을 차려입은 참가자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올 축제에서는 교복을 주제로 한 교복패션쇼가 열린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충장로 축제 홍보열차 뜬다

서울 용산~광주 운행

‘교복 패션쇼’도 열기로

개막을 30여일 앞둔 광주 충장로축제 기간에 축제 홍보를 위한 열차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운행된다.

광주 동구는 “충장로축제 기간인 10월11일 오전 9시 서울 용산역에서 승객 354명을 태운 ‘충장열차’가 출발, 오후 1시 광주역에 도착한 뒤 오후 8시 용산역으로 되돌아갈 예정이다”고 28일 밝혔다.

‘충장열차’는 코레일과 연계해 마련됐으며 다음달부터 서울의 철도 역사 곳곳에 부착될 홍보물을 통해 승객들을 모집하고 고향인 광주인 사람들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열차 요금은 왕복 2만원이며 나머지는 코레일과 동구가 분담한다. 열차 내에서는 통기타 가수 공연, 추억의 물건 판매 등 각종 이벤트가 마련돼 축제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이번 축제기간 동안 7080세대의 대표 아이콘으로 손꼽히는 ‘교복’을 주제로 한 패션쇼도 열린다. 충장축제위원회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교복을 한 자리에 모아 등하굣길, 소풍 등 학창시절 분위기에 맞춰 파티 형식의 교복패션쇼를 연다고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